

종전 기대에 금융시장 안도 랠리... 원화값 치솟고 금리 뚝

코스피 8%대 급등, 사이드카 발동
뉴욕·아시아 증시 일제히 반등
기관 매수세에 반도체주 주주
WGBI 편입에 채권시장 강세
유가·협상 불확실성은 여전



= 코스피는 전 거래일(5052.46)보다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마감한 1일 서울
종교 하나은행 본점 모니터에 지수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란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일 오후(한국 시간 2
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
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31일
(현지시간)미국 나스닥은 3.83% 급등하
고, 폭등하던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
아섰다. 1일 코스피도 8% 넘게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501원대로 내렸다. 아
시아 증시도 일제히 급등했다. 종전 협
상 타결까지는 양측이 남아 있고, 호
르무즈 해협 통항과 미국과 나토의 관계
재설정 등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최
악 상황은 넘긴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환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8.44% 치솟은 5478.70에
마감했다. 오전 9시 7분에는 코스피시장
에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시
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18일 이후 14일 만이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
화하는 장치인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모
두 11차례 발동됐으며 이 중 매도 사이드
카가 6회, 매수 사이드카가 5회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업종 전반이 급등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3.4% 급등하며
18만원(18만9600원) 선을 회복했다. SK
하이닉스는 전날 종가보다 10.66% 오른
89만3000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4조원 넘게
사들이며 시장을 이끌었다. 10거래일 연
속 팔자에 나선 외국인은 6000억원 가량
순매도했지만, 강도는 약해졌다.

이날 반등은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 종
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글
로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다
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
고, 마수드 페제שי키안 이란 대통령도 종
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종전 기대에 먼저 반응한 곳은 뉴욕증
시다. 31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
(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는 2.49% 급등한 4만6341.51에 마감했
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2.91%, 3.
83% 급등했다. 웰스얼라이언스의 에릭
디트 사장은 “전쟁 종식을 향한 어떤 조
치든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며 “다만 아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석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압박을 받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환호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5.24% 급등했고, 대만
가권 지수는 4.58% 올랐다. 중국 상해종합

지수와 홍콩 항셱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유가도 한숨을
둘렀다. 31일(현지시간)서부텍사스산원유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46% 내린
배럴당 101.38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1530.1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
했던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내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는 전장보다 28.8원 내린

1501.3원이다.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
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된 이날 국
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가격 상승)
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보다 18.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370%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3.689%로 19.0bp 내렸다.

◆안도 랠리 펼칠까

시장 전문가들은 종전이 현실화하면
증시가 안정을 되찾겠지만, 잦은 변동성
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4월에
도 전쟁 여진 속 미국 사모대출 시장 노
이즈,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정점 후 하
락) 논란 등으로 제약적인 환경에 놓일
수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연초 폭등
 랠리 부담을 대부분 털어낸 가운데 밸류
에이션(평가가치)상 진입 이점도 재차
 높아지며 주가 복원력이 생성되고 있다
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증시

는 지정학 변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펀더멘
털을 크게 하회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
투자자에게는 단기 지정학 이벤트가 큰 변
수가 아닐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짧은 투
자자에게는 공포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고유가
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지라면서 “첫 한 달 기준 이란 전쟁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2025년 4
월 미국 해방일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박형중 우
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에서
는 환율 상단이 1600원까지도 열려 있다
고 봐야 한다”고 했다. 중동발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 주요 중앙은
행들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도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
고 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美 “결승선 보인다” 낙관 이란 “장기전 불사” 맞대응

루비오, 직접 회담 가능성까지 언급
아라그치 “최소 6개월 전쟁 대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결을 언급한 반면, 이란 외무장관은 장
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란 장관의 경우, 협상 의지를 드러낸 자
국 대통령과 입장이 배치되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
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내일은 아니더라도 다가오고 있
다. 결승선이 보인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 미국 간 입장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이 “언젠가
직접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과 만난 자리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며 종전 시점을 ‘2~3주 내’로 거론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직접 대화 가능

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발언은 루비오의 ‘표
면적’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다.

31일 CNN방송에 따르면 아바스 아
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알자지라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최소 6개월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자국 방어와
관련해 어떠한 기한도 정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적
들이 어떠한 종전 일정을 설정하든 상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과 관
계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
다. 그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끝내려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선행
돼야 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
고 답했다. /김연세 기자 kys@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BNK 가을야구 예금·적금

BNK가을야구 예금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원단위) (1인당 가입한도 합산 5억원이하)

[가입대상] 재한민(국, 금융기관 및 별도 협약 시금고는 제외)

[가입기간] 12개월

[적용금리] 최저 연 2.40% ~ 최고 연 3.20%
(2026.03.27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2.40%+우대이율 최대 0.80%p 모두 적용 시)

[우대이율항목] ① 승리기원 우대이율 0.20%p (연가배치 시 모든 고객 적용)
② 승리기원 우대이율 최대 0.20%p (연가배치 시 70%이상 0.10%p, 정규시즌 80%이상 0.20%p)
③ 가배치적 우대이율 최대 0.30%p

[예금] 일출금통장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인 환수가 가입기간중 6회 이상 : 0.15%p
가입기간 중 신용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 : 0.15%p

[제한 외] 일출금통장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인 환수가 가입기간중 6회 이상 : 0.15%p
가입기간 중 신용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 0.15%p
④ 반가운손님 우대(가입일 전월 기준 1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0%p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특판 기간] 2026.03.27 ~ 2026.05.31(단, 한도 5천만원 소진 시 조기종료)

[예상수취이자액]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적용금리 3.20%, 총 이자(세전) 320,000원
※ 가입액,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BNK가을야구 적금

[가입금액] 1만원 ~ 1백만원(만단위)

[가입대상] 실령의 개인

[가입기간] 12개월

[적용금리] 최저 연 2.40% ~ 최고 연 3.40%
(2026.03.27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2.40%+우대이율 최대 1.00%p 모두 적용 시)

[우대이율항목] ① 승리기원 우대이율 0.20%p (연가배치 시 모든 고객 적용)
② 승리기원 우대이율 최대 0.20%p (연가배치 시 70%이상 0.10%p, 정규시즌 80%이상 0.20%p)
③ 가배치적 우대이율 최대 0.30%p

④ BNK가을야구 예금 통시기금 우대 0.20%p(통일지 지급 시 적용)
⑤ 가배치적 우대 최대 0.30%p
- 일출금통장 월평균 100만원 이상인 환수가 가입기간중 6회 이상 : 0.15%p
- 가입기간 중 신용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 : 0.15%p
⑥ 반가운손님 우대(가입일 전월 기준 1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0%p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특판 기간] 2026.03.27 ~ 2026.05.31(단, 한도 5천만원 소진 시 조기종료)

[예상수취이자액] 월 적립액 50만원 기준, 적용금리 3.40%, 총 이자(세전) 115,500원
※ 적립액,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만기일 해지할 경우 약정할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에 합류, 가입 등 이통계정 연동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만 손실액에 보충보상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부선민영 모바일뱅킹 앱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발행일인 2026-05-19 (상)의일자 2026.03.19 | 유효기간 2026.03.27 ~ 2026.05.3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